



밝아오는 새해에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자

한국TDK(주) 환경안전팀장 / 김진식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한 잔의 차를 음미함은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은 아니지만 반 백년의 삶을 되짚어 보니, 삶이란 살아갈수록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신감도 없어지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 발 맞춰 쉬임 없이 내달으니 어느덧 2004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숨쉴 틈 없이 바쁜 외중에도 가끔은 먼 하늘과 바다 저 끝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 보는 여유로움이 필요하겠지요.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삶의 여유로움을 갖기에 무척이나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세상에서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반평생을 살고 보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군요. 경제는 이미 바닥에 치달았고, 직장 내에서 내 책상이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화분속의 꽃은 뽑아 다른 화분으로 옮겨 심어도 며칠이 지나면 뿌리를 내려 잘 자라지만, 우리내 삶의 뿌리는 한번 뽑히게 되면 다시 뿌리내릴 터전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힘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소외당한 우리

의 이웃이 참 많습니다.

또한, 나아가 주위를 둘러보며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소외당한 이들이 다시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터전을 잡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만들어 스스로 잘 자라 열매 맺도록 애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바다로 달려갑니다. 늘 뜨는 해이지만 새해 첫날의 해는 우리에게 남다른 감회로,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에서이지요. 새해의 해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변함없는 그 모습에 새로운 다짐과 기대를 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새해 다짐한 계획이나 목표들 중에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바쁘다. 바쁘다.'하며 동분서주 뛰어 다니지만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해는 자신의 시간과 일정한 자태로 우리의 조급함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어제와 오늘을 잠시 생각하고,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잠자기 전 잠시의 지성적인 명상으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릅니다. 직장 안에서도 우리를 흥분시키고 격노케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만 참아보십시오.

나를 격노케 하고 화나게 한 사건의 화살이 다른 방향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지간에 잠깐의 여유와 명상이 삶의 모습을 보다 밝고 희망차게 바꾸어 갑니다. 이로 인한 무사고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행복을 찾는 지혜,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살아온 길을 가끔은 한번씩 되돌아보는 여유!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여유!

결코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맞이하는 2004년 마음속에 大河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아침에 드시는 한 잔의 차. 우리의 삶을 살찌울 수도 있습니다. ◀